



Fresh Air, Eliden

S/S 뉴 어라이브 컬렉션, 새로운 브랜드, 리뉴얼한 카페 아누까지. 생기 넘치는 시즌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멀티숍 엘리덴.



이제 멀티숍 엘리덴의 계절은 완전한 봄이이다. 로맨틱한 플라워 프린트 가득한 드레스와 에스닉풍의 하늘거리는 시즌 플라우스, 핫 핑크 보트넥까지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놓을 S/S 제품들로 가득하다.

"엘리덴은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빌 블라스의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된 피터 슐의 사랑스러운 플라우스를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시크함을 가미했지요. 예전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스타일이 최근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과감한 시도가 패셔너블하다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엘리덴 바이어 남수영 과장의 설명이다. 하이엔드 스타일을 추구하는 멀티숍 엘리덴은 20~40대 브랜드세미들의 스타일에 모던한 감각을 더하기 위해 바일 리스트를 더욱 강화했다. 아이티스틱한 감성의 모리치오 베코로, 데일리밍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지안마리스타 발리, 별지인 특유의 실루엣과 레이어링한 텍스처를 레미닌 룩을 볼 수 있는 엔 드림미스터는 엘

리덴 컬렉션에 시크함을 더해 줄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엘리덴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액세서리를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시즌 엘리덴이 뉴 잇 백으로 꼽는 것은 바로 데리 렘의 백이다. 토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되면서 그의 시그니처 백도 모즈 그룹에서 제작되고 있는 것. 본 다운튼 내수업 팔리에 소프트한 세이프, 고풍스러운 브론즈 양머리 장식으로 대표되는 데리 렘의 숄더백에서는 1970년대 클래식 레트로 루드가 물씬 풍긴다.

이외에도 뉴요커의 감성이 느껴지는 수나 지 백, 지난 시즌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랑방의 컬러풀한 하이브리드 슈즈, 뉴욕의 가장 핫한 슈즈 브랜드 시제스 모리슨의 라운드 토 슈즈도 주목할 만한 아이템이다. 엔드류 지엔, 플레 등 오로지 에비뉴엘에서만 만날 수 있는 브랜드와 한 브랜드당 2~3점만 들여오는 차별화 원칙도 여자라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희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엘리덴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앞서가는 브랜드세미들의 핫 쇼핑 플레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FASHION

- Aiko Ogawa
- Alessandro Dell'Acqua
- Andrew G.N
- Ann Demeulemeester
- Antonio Berardi
- Ava Adore
- Bethnal Sarajpour
- Catherine Malandrino
- Chris Han
- Debora Sibibaldi

Derek Lam

- Doo Ri
- ES
- Giambattista Valli
- Hussein Chalayan
- Martin Margiela
- Loewe
- Matthew Williamson
- Maurizio Pecorello
- Miyu
- Nina Ricci

Peter Som

- Rachel Roy
- Rick Owens/Lilies
- Sophia Kokorotaki
- Thakoon
- Thomas Maier
- Tuleh
- Veronique Branquinho
- Wunderkind
- Zac Posen

LEISURE

- Bed Head Pajamas
 - Christine Vancouver
 - La Vie à Deux
- ACCESSORIES
- Brother Emden
 - Jamie Pasch
 - Morganthal Frederica
 - Song A
 - Spencer Morrison
 - Suna Ji



신발 ₩ 500,000, 2개 ₩ 200,000

Hot Place, 3F heel'n'tote

매 시즌 새로운 잇 백과 슈즈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녀들을 위한 슈즈 & 가방 멀티숍 힐엔토틀.



루디스 라베의 열거계 지갑, 2개 ₩ 600,000



아름다운 스타일레트 힐의 유혹, 아티스틱 텍스처가 가미된 패셔너블한 토틀백. 여자라면 누구나 사랑에 빠지는 액세서리가 바로 슈즈와 백이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들이 옷장과 신발장에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여자의 욕심은 해소분과 같다. 이런 여자들의 심리를 간파한 공간이 바로 에비뉴엘의 핫플레이스 힐엔토틀이다. 매 시즌 새로운 가방과 슈즈를 한자리에서 소장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핫한 브랜드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힐엔토틀에서는 감각 있는 패션 피플들이 열광하는 비베리 부아의 가방과 슈즈는 물론, 주세페 자노티의 주얼리 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시즌부터는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던 페드로 가르시아, 빅터 앤 로프 등의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해 보다 특별한 디자이너 슈즈 컬렉션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에비뉴엘의 주요 콘셉트인 '아트 & 갤러리'의 느낌이 묻어나는 힐엔토틀은 영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스투디오가 연출했는데, 마치 슈즈 & 가방 갤러리에 온 듯 친한히 제품을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장점이다. 특히 해외 셀러브리티들이 즐겨 착용하는 최신 트렌드의 가방과 구두를 보는 재미가 없을할 것이다. 실용적인 플랫폼 슈즈와 빅 슬리퍼부터 이브닝 룩에 연출할 수 있는 주얼리 디테일 샌들과 화려한 컬러지 백까지 모든 종류의 슈즈와 백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힐엔토틀이다.



9월 4일 7시~12시 연중
스포츠 슈즈 70% 할인

Barbara Bui
Christian Lacroix
Emilio Pucci
French Sole & London Sole
Furla
Ginza
Giuseppe Zanotti

Givenchy
Globe Trotter
Judith Leiber
Marc by Marc Jacobs
Pedro Garcia
Victor & Rolf
Zuli Alexander



CHOIX d'ADAM

그동안 남성을 위한 쇼핑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들을 위해 탄생한 슈와데인. '아담의 선택'이라는 뜻을 지닌 슈와데인은 의류를 제외한 모든 액세서리를 총망라한 남성 전용 멀티숍이다. 지갑, 다이어리를 포함한 스몰 레더 굿 제품을 시작으로 브리프케이스, 여행용 가방, 구두, 타이, 시계, 시가 관련 액세서리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폴 스미스, 단탈, 에르메네실도 재나 등에서 선보이는 액세서리는 물론이고, 크로켓 앤 존슨의 최고급 수세화, 빅터 앤 로프의 커피스 링크, 비로시체 타이, 다비드프 시가, 쉘스나이트를 비롯해 각종 대대로운 브랜드와 제품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직 스포츠 룩부터 워크엔드 룩에 잘 어울리는 호련리한 액세서리를 한자리에서 원스톱 쇼핑할 수 있다는 편리함에 벌써부터 많은 남성 고객들의 사랑받고 있다. ₩ 50,000.

신발 ₩ 500,000, 2개 ₩ 200,000



CHOIX d'EVE

업자와 말이 함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주얼리 힐엔토틀 슈와데인. '이브의 선택'이라는 이름처럼 엔틱 주얼리부터 모던하고 세련된 실버 주얼리까지 여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주얼리 000명이 가득하다. 독일의 컨템퍼러리의 주얼리 브랜드 니켈, 엔틱 주얼리 마르, 오리엔탈리즘을 추구하는 빅터 앤 로프, 영국의 주얼리 디자이너 스티븐 헨슬러 컬렉션, 프랑스 주얼리 레부 등을 비롯해 총 10개의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슈와데인은 클래식한 라인 주얼리보다 감각적이고 독특한 개성이 느껴지는 유니크한 주얼리를 선호하는 여성들의 스타일 파라다이스로 가득할 것이다. 슈와데인은 에비뉴엘 2층에 위치해 있다. ₩ 50,000.

신발 ₩ 500,000, 2개 ₩ 200,000

